

오영재의 시작품에 구현된 언어구사의 특징

주 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문체를 못가진 작가는 진짜작가가 아니다. 작가라면 자기의 뚜렷한 언어적개성을 가지고 창작에서 매번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형상을 들고나와야 한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6권 302페이지)

문학에서 언어형상의 개성화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도는 작가들이 자기 식의 독특한 문체를 확립하는것이다.

시인 오영재는 정론적이며 낭만적인 시문체와 심각한 체험이 담긴 사색적이고 은근한 어조의 언어형상으로 하여 자기의 얼굴, 고유한 언어발이 있는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오영재의 시작품에 구현된 언어구사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심각한 체험이 담긴 사색적이고 은근한 어조의 언어들로 이루어진것이다.

시인 오영재는 남보다 체험이 많고 눈물이 많으며 그리움과 사색속에 산 사람이였다.

그에게는 남녘땅에서 자란 피눈물나는 어린시절의 추억과 전화의 나날에 겪은 귀중한 체험이 있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행복의 시절 격동적인 시대와 함께 호흡을 하며 살아온 잊을수 없는 체험도 있었다.

이런 정서적체험으로부터 그의 언어들은 사색이 깊고 은근한것이 특징적이다.

시 《행복한 땅에서》는 남녘땅 멀리에 부모형제를 두고 온 시인의 아픈 마음을 읽어보게 한다. 행복앞에서 부모형제를 그리는 시인의 시어들은 그리움의 눈물에 젖어있다. 작품에서 표현된 시인의 언어는 소박하고 진실하며 절절하다.

《내 어린시절의 눈물과 맨발이 찍힌/남해바다가 고향의 모래불우에》, 《마음은 저 멀리 남녘의 하늘밑에 가있었고》, 《너는 불행에는 것처럼 모질었어도/행복에는 것처럼 해픈 것이었던가》 등은 매우 사색적이며 잔잔하고 진실한 언어들이다.

사색적이며 은근한 어조의 언어들은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만이 아니라 당에 대한 숭가적성격을 띠는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시 《당에 끝없이 충실할 때》에서는 당에 자기의 진심을 다 바치며 끝없이 충실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사색적으로 은근하게 안겨온다.

《끝없이 그 푸른 수면을 주름잡으며/한밤중에도 나를 잠못들게 하노라》, 《귀여운 아가를 잠재우는 어머니와도 같이/나를 내려다보는/자애로운 당의 눈길을 느끼노라》는 진실하고 정서적이며 사색이 깊은 언어들이다.

그의 시어들은 소박하고 진실하며 향토적서정이 매우 짙다.

시 《동포애의 뜨거운 배길이어》의 언어는 그 어떤 꾸밈과 가식이 하나도 없이 소박하고 진실하며 고향에 대한 향토적서정이 매우 짙은 언어들이다.

시인의 시어들은 어머니의 따스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고 살뜰한 사랑을 가슴찌릿이 느끼게 한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흐르며 또 한없이 소박하고 뜨겁다.

가사 《흰눈덮인 고향집》과 《장군님식술》도 사색적이며 은근한 어조의 언어문체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영재의 시작품에 구현된 언어구사의 특징은 다음으로 생동한 시적세부, 표상의 제

시로 시적언어표현의 회화성을 강하게 나타낸것이다.

시인 오영재는 시적언어표현의 회화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생동한 시적세부와 표상을 그림처럼 펼쳐보이였다.

밤길도록 뒤척이다 꽃잠이 들면
꿈에 어린다
어린시절 호남선열차의 차창에서 보았던
고향의 강 영산강에 뜬 돛배들
마당가에 서있는 두그루의 감나무
애들아 앞서 걸으라 저기에 너희 할머니 계신다
그러면 메밀꽃 하얗게 핀 발머리에
서있는 나의 어머니
그날의 쪽물들인 치마에 곱게 빗어올린 검은 머리…
(시 《분단의 장벽은 무너지리》중에서)

작품에서는 어린시절 호남선열차의 차창에서 보았던 고향의 강, 영산강에 뜬 돛배, 메밀꽃 하얗게 핀 발머리에 서있는 어머니, 쪽물들인 치마에 곱게 빗어올린 검은 머리와 같은 생동한 시적세부, 표상을 제시함으로써 마치도 그러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듯 하다.

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에서는 어린시절 형제들과 뛰어놀던 모습이 눈앞에 방불하게 안겨온다.

뒤동산 동백나무우에 올라 밀짚대로 꽃속의 꿀을 빨아먹던 어린시절의 모습, 눈오는 겨울밤 한이불밑에서 서로 겨안고 푸른 하늘 은하수를 부르던 형제들의 개성과 모습이 생생히 안겨오는 시적화폭이다.

오영재의 시들에는 피로움과 고통, 굴복을 모르는 반항심, 의지와 투쟁정신, 고향과 어머니의 사랑 등을 형상한것들이 많다.

청춘남녀가 백년가약을 맺은것을 수틀에 비유한 정서적인 세부는 매우 인상깊다.

굳은 서약이 또 하나 맺어지는 오늘
살아온 길이 그대들에게 수틀을 무어주었다면
살아갈 길은 그 수틀우에
그 무엇인가를 수놓아야 할
알수 없는, 그러나 끝없는 공백이여라
(시 《축복》중에서)

시에서는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수틀이 짝을 무은것처럼 표상적으로 시각화되어 안겨오고 계속하여 그들의 앞날이 한뼘두뼘 수를 놓듯 눈앞에 펼쳐진다.

그는 시 《달님의 축사》에서 청춘남녀의 사랑이 싹트고 아지펼치고 열매맺는것을 달에 비유하여 초생달이 되였다 반달이 되고 그다음 만월로 둥글어지는것으로 마치 눈으로 환히 보듯이 펼쳐보였다.

그리고 범민족대회의 나날에 대표들이 모여온것을 두 리상이라는 시적세부를 통하여

한집안식구로 표현하였으며 결혼식날의 부부를 《한쪽 나래는 서로 곁고 한쪽 나래는 서로 저으며 사랑하며 위해주》는 한쌍의 새에 비유하여 형상하였다.

걸어온 인생행로를 발자욱이라는 세부에 담아 표현한 《나의 발자욱》도 역시 생동하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것, 내면심리적인것까지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오영재의 시작품에 구현된 언어구사의 특징은 다음으로 여러가지 언어표현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시적형상을 부각시킨것이다.

그는 우선 직유, 은유법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그가 가장 많이 활용한 수법은 직유이다.

호수가운데 섬들은
깊숙이 물그림자 구름처럼 드리우고
그우에 달빛은 미끄러지듯 흐른다

호수는 녹아 엉킨 납덩이처럼
설레일줄 모른다

청고운 어린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
너의 물우에 꽃보라마냥 내려꽃히고
미래의 그 맑은 눈동자
네우에 별처럼 뿌러지고있거니
(시 《대동강》중에서)

눈처럼 희디흰 자위, 그가운데 흑진주처럼 반짝이고있는 동공, 그것은 마치도 하얀 백사장에 둘러싸인 티 한점없이 맑은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산문시 《꿈나라로 가거라》중에서)

《눈처럼》, 《흑진주처럼》 등은 형상적비교를 주어 대상을 정서화하고 직관적으로 묘사하여 그 시적표현과 형상을 한층 풍부하게 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새 세계
그이는 우주의 중심
조선의 만경대
가난한 인민속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 수령님
그이는 주체의 태양!
(시 《만민의 태양》중에서)

우의 실례에서 《새 세계》, 《우주의 중심》, 《주체의 태양》 등은 단어결합에서 보게 되

는 은유적표현이다.

그는 은유로써 추상적개념을 구체적현상에 기초하여 비유함으로써 생동함을 주게 하였다.
그는 또한 의인법을 리용하여 생동성과 특이한 감정적색채를 나타내었다.

물길을 따라 내 걸어보니
물도 가는 법이 있구나
여울에서는 달리다가
깊은 소에서는 쉬어서 가고...

아무렴 바다에까지 가닿을라니
어찌 먼길에 힘겹지 않으랴
...

(시 《물길을 따라 내 걸어보니...》중에서)

여기서는 강물을 의인화하였다. 강물이 바다에 안기여 잔잔해진 모양을 지친 몸을 풀며 편히 쉬는것으로 형상하였으며 강물이 여울에서 물살이 급해지다가 소에서 서서히 흐르는것을 달리다가 쉬어서 가는것으로 또 먼길에 힘겨운것으로 형상하였다.

시인은 이렇게 강을 의인화함으로써 강물에 대한 친근감과 작품의 의미적색채를 더해주고 시의 형상성을 높이였다.

그는 또한 수사학적질문을 많이 활용하였다.

서정시 《그리운 장군님》에서는 수사학적질문을 무려 열번이나 하였다.

홍안의 소년시절에 떠나
질어가는 백발을 이고 50년만에 찾아오는
이 남녘땅의 첫 밤을
내 어찌 잠들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많은 밤
눈물도 많은 밤
북녘하늘 우러러 찾아보는 북두칠성은
왜 그리도 유난히 밝습니까

...

그는 시문장의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수사학적질문을 많이 적용하였다. 그는 이 수법을 작품에서 감정축적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리용하였다.

그는 또한 자리바꿈법, 점층법, 벌림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시행내에서 쓰이는 경우
원하노니, 나의 시편들도
네가 짓는 모양처럼 서로 다르고

너의 노래처럼 단조롭지 않다면
사람들 한생을 가는 길에서
즐거운 길동무를 만났다 하련만...
(시 《원하노니, 나의 시편들도》중에서)

한편에서 쓰이는 경우
어디냐
내 어린시절 달그림자 비낀
남해의 백사장은
어디냐
의용군으로 총을 메고
어머니와 헤어지던
랭자나무 푸른 울타리는
(시 《고향의 위도를 지나며》중에서)

시인은 이렇게 자리바꿈법을 써서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조성하게 하며 정서의 양양을 가져오게 하였다.

칸이 좁은 못들은
갓난 고기못
좁 더 넓은것은
어린 고기못
깊고 큰것은
어미고기못
(서사시 《대동강》중에서)

보는바와 같이 점층법은 시문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정서의 마루로 독자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작용을 놓고있다.

그의 시에는 종자의 요구에 따라 시전체가 점층법으로 된 경우도 있다.

시 《달님의 축사》는 처녀를 처음 보았을 때를 봄날의 초생달 뜬 밤으로, 두번째는 여름날 반달이 솟은 밤으로, 세번째는 가을날 만월이 솟은 밤으로 묘사함으로써 무르익은 사랑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보여주었다.

시인은 라렬법을 리용하여 내용을 강조해주며 시문장의 박력을 조성해주고 산문화를 극복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정론시나 풍자시와 같이 사회정치적문제성을 제기하거나 또는 풍자의 대상을 조소하는데서 문제를 예리화시키고 형상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는 또한 반대말을 많이 활용하였다.

하늘에 해와 달은 있었지만
땅우엔 광명이 없던 긴긴 세월
(헌시 《누리에 빛나라 주체사상이여》중에서)

공훈은 남에게 주어 기뻐고
시련은 자신이 지녀 자랑스럽던 가슴들
(서사시 《대동강》중에서)

시인은 반대말을 살려씀으로써 문장의 정서를 돋구었을뿐아니라 시인의 절절한 감정을 잘 나타내었다.

시인 오영재는 사색적이고 은근하며 긴 시행으로 문단에 자기의 개성을 남긴 작가이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들은 자기의 기량을 더욱 높여 높은 사상예술성과 뚜렷한 개성을 가진 작가로서 선군혁명문학예술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